



2009마리 추모 나비 훨~ 훨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제29주년 기념식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여야 대표들이 5월 영령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2009마리 추모의 나비를 날려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 총리 “5·18은 역사에 남을 자산”

29주년 기념식 엄수...서울·인천 등서도 추모행사

5·18민주화운동 제29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됐다. (관련기사 3·4·6·7면) 기념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각 정당 대표와 5·18 유가족, 5월 단체 회원, 시민 등 2천 500명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저항과 공감'을 주제로 한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한 총리의 헌화·분향에 이어 장갑수 광주지방보훈청장의 5·18민주화운동 경과보고, 광주 시립국악관현악단·합창단과 인천 오페라합창단의 공연, 기념사, 추모의 나비 날리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큰 디딤돌로 역사에 영원히 남을 귀중한 자산이다"며 "이 자산을 국가발전의 더 큰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 또 "세계사의 중심에 자리 잡은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면서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으로 다시 한 번 힘차게 일어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5·18은 극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서로가 힘을 합쳐 민주화를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그 때의 정신과 교훈을 되살리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념사에 이어 합평군이 제공한 2009마리 추모의 나비 날리기 행사가 펼쳐졌다. 이와 함께 전남도 내 각 시·군과 서울,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추모행사가 열려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광주일보가 후원하는 제7회 전국후보대회가 오는 23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광장에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주관으로 열린다. 27일에는 5·18구속부상자회 주관으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부활제'가 개최된다. 또 전남대 5·18연구소의 국제학술대회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기념 사진전, 음악회 등 5·18정신 계승 행사와 각종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박정욱·이종행기자 jwpark@

친환경 급식 재료 지역제한 “없던 일로”

전남도, 광주도 허용

전남도가 학교 급식용 식재료의 공급지역을 전남으로 제한했던 정책을 바꿔 광주지역도 허용할 방침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학교 급식용 식재료의

100% 전남산 친환경농산물 공급 정책을 일부 변경, 광주지역 농산물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전남지역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해왔던 광주지역 일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전남도의 학교

지역농가 ‘전기료 폭탄’ 시름

정부·한전 농사용 인상 움직임에 “엎친데 덮친격” 울상

정부와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료 원가가 다른 용도에 비해 너무 싸다며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18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력 판매량은 1천2억7천98만kWh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농사용 전력 판매는 24억9천950만kWh로 9.3% 증가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산업용 전력을 비롯한 전체 전력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농사용 전력 소비량은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농사용 전력 소비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유가가 오르면서 농가들이 유류를 이용한 난방보다 비교적 싼 전기를 이용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농사용 전력 가격이 낮게 매겨지면서 일반용이나 주택용 요금에서 거둔 요금으로 농사용 전력의 적

자를 줄여주는 교차보조가 심하게 적용된 것을 더욱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전력량에 따른 요금도 농사용은 kWh 당 20.60~36.40원으로, 계절과 전압, 심야시간대 여부에 따라 kWh 당 최저 35.90원에서 최고 100원을 넘는 교육용과 산업용에 크게 못 미친다. 전기요금이 원가의 어느 정도 수준 인지를 나타내는 원가보상률도 연료가 폭등까지 발생한 지난해 기준으로 일반용이 103.4%, 주택용이 95.8%, 산업용이 90.1%인데 비해 농사용은 38.3%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와 한전은 추후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과도한 교차보조가 일어나는 부분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사용 전력요금 이 상대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가보상률을 따져 농사용 전

력요금을 20% 이상만 인상하더라도 현재 1천여㎡에 딸린 재배 농가의 월 45만원 상당의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짐을 감안할 경우 월 9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 그나마 딸기는 저온성 작물이지만 고온성 작물일 경우 최소 월 20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월 현행 농사용 전기요금체계가 발전물의 경우 논작물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됨에 따라 발전물 농가 부담이 늘고 있다며 발전물 등의 요금을 논작물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와 한전에 건의하는 등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일일화를 요구했다. 최근 논 농사는 줄어드는 대신 밭작물 농가와 농산물 저온저장 건조시설 등 농업용 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수입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부담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과학고 경시대회·영재 특별전형 폐지

내년부터...학원 심야교습 금지는 백지화

내년 하반기 치러지는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에서부터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이 폐지된다. 또 외고는 올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지필형 면접고사가 금지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수학, 과학 내신 성적에 주는 가중치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목고 입시 개선안을 18일 당정협의회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없애기로 했다.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전형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 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을 현재의 지필고사 형태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심사로 개선할 방침이다. 외고는 올해 치러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은 논란이 된 심야 학원교습 금지 방안과 관련,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밝혀 학원 심야교습을 법률 제정을 통해 획일적으로 제한하려는 방안은 사실상 좌절됐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법률로 교습 시간을 정하는 것은 당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학원비 안정을 위해 학원비 공개나 학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교육부가 펼칠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